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15 November 2002 (afternoon)
Vendredi 15 novembre 2002 (après-midi)
Viernes 15 de noviembre de 2002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맹인 부부 가수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5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10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랴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랴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가고
 15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랴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랴 부르며
 20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정호승 시집 ‘ 슬픔이 기쁨에게 ’ 중에서)

1(b)

산정무한

이튿날 아침, 고단한 마련해선 일찌감치 눈이 떠진 것은 몸이 지닌 기쁨이 하도 컸던 탓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간밤에 볼 수 없던 영봉(靈峯)들을 대면(對面)하려고 새댁 같이 수줍은 생각으로 밖에 나섰으나, 계곡은 여태질은 안개 속에서, 준봉(峻峯)은 상기 깊은 구름 속에서 용이(容易)하게 자태를 엿보일 성싶지 않았고, 다만 가까운 데의 전나무, 잣나무 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5 쪽쪽 뻗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것이 눈에 뜨일 뿐이었다. 모두 근심 없이 자란 나무들이었다.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밋밋하게 자란 나무들이었다. 꼬질꼬질 뒤틀어지고 외틀어지고 한 야산(野山) 나무밖에 보지 못한 눈에는, 귀공자와 같이 기품(氣稟)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었다.

조반(朝飯) 후 단장(短杖) 짚고 험난한 전정(前程)을 웃음경삼아 탐승(探勝)의 길에 올랐을 때에는,

10 어느덧 구름과 안개가 개어져 원근(遠近) 산악이 열병식(閱兵式)하듯 점잖이들 버티고 서 있는데, 첫눈에 비치는 만산(萬山)의 색소는 홍(紅)! 이른바 단풍이란 저런 것인가 보다 하였다. 만학천봉(萬壑千峯)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웃는 듯, 산색(山色)은 붉은 대로 붉었다. 자세히 보니, 홍만도 아니었다. 청(靑)이 있고, 녹(錄)이 있고, 황(黃)이 있고, 등(登)이 있고, 이를테면 산 전체가 무지개와 같이 복잡한 색소로 구성되었으면서, 얼른 보기에 주홍(朱紅)만으로 보이는 것은

15 스펙트럼의 조화던가?

복잡한 것은 색(色)만이 아니었다. 산의 용모는 더욱 다기(多岐)하다. 혹은 깎은 듯이 준초(峻庠)하고, 혹은 그린 듯이 온후(溫厚)하고, 혹은 막잡아 빛은 듯이 험상궂고, 혹은 틀에 박은 듯이 단정하고. 용모, 풍취가 형형색색인 품이 이미 범속(凡俗)이 아니다.

산의 품평회(品評會)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無窮無盡)

20 이다. 장안사(長安寺) 맞은편 산에 울울창창(鬱鬱蒼蒼) 우거진 것은 다 잣나무 뿐인데, 모두 이등변삼각형(二等邊三角形)으러 가지를 늘어뜨리고 섰는 품이,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꺾어 놓은 차례탑(茶禮塔)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禮佛床)만으로는 미흡(未洽)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珍羞盛饌)을 배풀어 놓으신 것일까? 얼른 듣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탐낸다는 것이

천만부당(千萬不當) 한 말 같지만, 탐내는 그것이 물욕(物慾) 저편의 존재인 자연이고 보면, 자연을

25 맘껏 탐낸다는 것이 이미 불심(佛心)이 아니고 무엇이라. 장안사 앞으로 흐르는 계류(溪流)를 끼고 돌며 몇 굽이의 협곡(峽谷)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과 물이 어울리는 지점에 조그마한 찾집이 있다. 다리도 설 겸, 스태프북을 한 권 사서, 옆에 구비된 기념 인장을 찍으니, 그림과 함께 지면(紙面)에 나타나는 세 글자가 명경대(明鏡臺)! 부양(俯仰)하여 천지에 참괴(慙愧)함이 없는 공명(公明)한 심경을 명경지수라고 이르나니, 명경대란 흐르는 물조차 머무르게 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면,

30 지니고 온 악심(惡心)을 여기서만은 정(淨)하게 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명경대란 말인가!

(정비석, ‘산정무한’)